

# 문과대학 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과 진로독서 실태 분석\*

- A 대학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Students' Job Basic Competencies and Career Reading Status of the College of Liberal Arts: Focused on "A University"

주 용 국 (Yong-Kook Joo)\*\*

이 종 문 (Jong-Moon Lee)\*\*\*

### 초 록

본 연구는 A 대학교 문과대학(인문, 교육계열) 재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초역량과 진로독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직업기초역량의 경우 의사소통능력(평균 3.61), 대인관계능력(3.59), 문해력(3.40), 문제해결능력(3.39)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수리력(2.72), 사업가정신(2.89)은 낮았다. 둘째, 진로독서의 경우 65.2%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진로에 대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46.3%, '진로와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25.8%,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어서' 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기초역량이 미흡한 학생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점, 진로 자료 독서를 하고 있지 않는 학생이 65.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기초역량을 체계화하여 강화할 것과 진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in reading for future careers and suggests approaches to solve the identified problems by analyzing the fundamental vocational competence and reading for a future career. The study included 457 students in the liberal arts college (humanities and education programs) at "A"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communication ability (average 3.61),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3.59), literacy (3.40) and problem solving ability (3.39) were relatively high in fundamental vocational competence, while numeracy (2.72) and entrepreneurship (2.89) were low. Next, 65.2% of those reported no reading for their future career. 46.3% answered 'no time to read books related to my future career.' 25.8% selected 'no books worth reading related to my future career.' 22.5% said 'no curiosity about my future career.' Considering that those who did not read any materials related to a future career reached 65.2% and a number of students had low fundamental vocational competenc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for standardizing and strengthening fundamental vocational competence and enhancing understanding of future careers.

키워드: 직업, 직업기초역량, 진로, 진로독서, 독서, 진로자료

Vocation, Fundamental Vocational Competence, Future Career, Reading for Future Career, Reading, Materials related to Future Career

\* 이 연구는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2015년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문과대학 학생들의 진로독서 실태 분석 연구: A대학교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yongkookjoo@ks.ac.kr) (제1저자)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mlee@ks.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9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157-177,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3.157]

## 1. 서론

대학교육의 팽창과 고용없는 성장이 맞물리면서 고급인력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의 심화로 2000년대 이후 대졸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취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졸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진미석 2017). 이 때문에 대학들은 진로 및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역량과 전문역량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예, NCS 기반 교육과정 설계)과 노동시장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진미석 외 2017), 진로설정과 준비성, 취업 성취활동을 돕고 있으나, 대학생들은 여전히 진로 결정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가 재학생 4,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진로 의식 설문조사'(대학저널 2017.3.15)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진학 및 전공 선택 시 향후 진로를 고려해 선택했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현재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진로 탐색으로 대학 진학 이후 편입학, 중도탈락, 휴학, 졸업 유예 학생의 증가 등 대학 재학 중 학생들의 진로변동이 심화되므로 대학진학 이후의 진로개발 지원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아시아투데이 2018.3.4)를 보면 "청년들의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시 어려운 점은 취업정보 부족이 32.0%(2015년 기준)"로 나타날 정도로 취

업정보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용어에서처럼 문과 관련 대학생을 위한 진로나 취업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물론 대학생용 학생진로가이드북(장서영 외 2014) 개발이나 대학생을 위한 진로 계획수립과 취업정보 제공(유길상 2014)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21개 프라임 사업 대학 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활동 경험 실태에 따르면, 진로탐색교과목, 전공교수와의 상담, 전공 관련 진로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진로 경험 빈도는 50%를 넘지 않고 있으며, 취업이나 창업동아리, 인턴 경험은 3분의 1의 학생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진미석 외 2017). 현실적으로 문과대 관련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이런 진로가이드북이나 진로상담, 취업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는 이공계나 타 전공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하고 문과 관련 학과의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직업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복합적인 진로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진미석 외 2017). 또한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역량을 갖추고 대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이상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진로역량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취업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과 부족성이 인지되고 있음에도 문과 관련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로 관련 독서를 통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내면화하여 진로와 취업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핵심 활동인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관련 연구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수 발견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진로독서의 실제와 연구가 미흡한 경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진로와 취업의 설정, 준비, 성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가용되고 있는 직업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내면적 앎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대학 문과대학생들(인문계열 전공과 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독서 역량과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독서체계 모형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문 및 교육계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핵심역량으로서의 직업기초역량(학과별 직업기초역량의 평균, 표준편차, 직업기초역량의 학과별 차이)과 진로독서 실태(진로자료 독서 여부, 진로 관련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진로 관련 독서 매체자료, 진로 관련 독서 자료 유형, 진로 관련 독서유형, 진로 관련 독서량, 진로독서 시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인문 및 교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독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2. 이론적 고찰

### 2.1 진로독서 개념

진로(進路)는 현 단계를 기준으로 “나아갈 길”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나아갈 모든 길(생애설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진로는 그 선택의 올바름을 위해서는 그 속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진로 정보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독서활동이 필요하다. 진로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독서는 각종 사전에서도 그 용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학자들의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진로교육이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중등학교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이론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2011, 58)은 “진로독서란 책 속에서 길 찾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서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직·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이해와 목표 설정 및 가치관확립 등을 도와 올바른 진로 선택으로 이끄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가 어떤 목적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나 지식을 이를 전달하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용하고, 이를 독서 작용을 통해 내면화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 합리성 있는 인식과 행동양식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지적활동이라고 한다면, 진로독서는 이 같은 독서활동을 통해 “삶의 나아갈 길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 개척하는 데 목적”(박희영 2017, 7)을 둔 지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독서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간접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탐색을 가능하게”(황미숙 2017, 2) 하고, 이것이 결국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 2.2 진로독서 영역

대학생들의 진로독서 영역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핵심은 직업의 기초가 되는 직업기초 역량과 관련한 독서활동,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와 관련한 독서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기초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직업기초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 선택한 진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등에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 성

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기초역량은 사회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사회 패러다임이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로 전화됨에 따라 글로벌 창조인적자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업기초역량에 기업가정신, 창조역량(전문성, 창의사고기술, 동기)과 글로벌 역량의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주용국 2017). 더불어 기업이 대학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최근에는 개인적 능력에 더하여 조직에 유익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현장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진미석 외 2017).

실제로 한국대학신문에 의하면, “기업에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들이 영어나 컴퓨터 실력은 우수하지만 현장 실무처리능력이 부족해 입사 후 재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지식, 창의력, 조직적응력,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소양 등이 부족하다(한국대학신문 2012.5.14.일자)고 지적되어 있다. 관련하여 UN, OECD DeSeCo 프로젝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된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역량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파악한 것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 직업기초역량(핵심역량) 능력 항목 비교

구분	사고력	자기개발	수리활용	정보활용	기술활용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력관계	전공지식	타문화이해
UN	×	○	×	×	○	×	○	○	○	○
OECD	×	○	×	○	○	○	○	○	×	○
한국교육개발원	○	○	×	○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	○	○	○	○	×	○

이와 관련하여 이명희는(2012) 대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인지적 역량, 관계적 역량, 정의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핵심 역량을 인지적 역량에서는 논리적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관계적 역량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협력관계 형성능력, 글로벌 역량을, 정의적 역량에서는 자기관리 능력, 가치관 및 태도, 리더십을 제시한 바 있다(<표 2> 참조).

문제는 이 같은 직업기초역량은 대학에서의 형식 및 비형식학습 활동(진로 관련 프로그램 등)과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개발에 영향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사회, 경제적 배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Fouad 외(2008)가 5개의 아시아계 미국인(중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동남 아시아계 미국인, 남미계 미국인 그리고 인도계 미국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진로 설계와 직업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배경 요인과 대학 환경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대학 환경 요인은 대학의 설립주체(사립 대 국립), 대학의 크기 등과 같은 대학 기관의 특성과 학점, 대학을 다니는 동안의 사회적 몰입(교과 외 활동, 사회봉사 활동), 일과 인턴십 경

<표 2> 대학생의 핵심역량 영역과 구성요소

역량	핵심역량 영역	구성요소	
인지적 역량	논리적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판적, 분석적 사고력</li> <li>•적응력</li> <li>•창의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통합적 사고력</li> <li>•예측과 추리력</li> <li>•합리적 판단력</li> </ul>
	문제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원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li> <li>•사고의 유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요인 극복능력</li> <li>•독립심</li> </ul>
	정보기술 활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활용능력</li> <li>•기술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치도표 해석</li> </ul>
관계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견 경청능력</li> <li>•자기의사 표현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해능력(말하기, 듣기, 쓰기능력)</li> </ul>
	협력관계 형성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능력</li> <li>•상호의견 교환과 합의점 도출</li> <li>•타인에 대한 지원과 신뢰</li> <li>•중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상능력</li> <li>•개방성</li> <li>•조정</li> </ul>
	글로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에 대한 이해</li> <li>•글로벌 환경 노출</li> <li>•글로벌 트렌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어 능력</li> <li>•다문화 이해 및 다양성</li> <li>•수용능력</li> </ul>
정의적 역량	자기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의식</li> <li>•자기 주도적 학습능력</li> <li>•지속적 학습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li> <li>•자신감과 자존감</li> </ul>
	가치관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성</li> <li>•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의식</li> </ul>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능력과 조직비전 제시</li> <li>•책임감</li> <li>•전체 조망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전정신</li> <li>•뚜렷한 주관과 추진력</li> <li>•갈등 조율능력</li> </ul>

출처: 이명희,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지도 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86-87.

협, 전공 만족도, 대학 진로지도 만족도, 협동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협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박혜경 2013).

다음으로 생애단계별 진로 목표를 보면, 대학생들의 진로(career)는 협의의 관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직업적 진로와 수행할 직무영역을 선택하는 것, 진학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및 그 전공영역을 선택하는 일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개발 표준은 대학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진로교육영역을 자신의 이해, 교육 및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신선미 외 2016;

최동선, 운영한 2007). 각 영역의 세부내용과 진로교육목표는 <표 3>과 같다.

문제는 대학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이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초·중등학교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과목이 정규 교육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아직은 도입 초기에 머물러 있고, 이런 연유로 많은 부분을 학생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체험적(간접적)으로 진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내면화를 통해 합리성 있는 결과와 진로 행동양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직업기초역량

<표 3> 대학생 진로개발 표준

교육영역		교육목표
대학생 진로교육 목표		자신이 결정한 직업 또는 진로의 획득 및 입직(入職)을 위한 준비행동을 전개한다.
자신의 이해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 자신 만의 흥미, 능력, 가치, 성격 등의 다양한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한다.
교육 및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일과 직업의 이해	-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가 개인의 삶과 직업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개발에 통합한다.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 형성	-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진로정보의 탐색·해석·평가·활용	- 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수집하여 이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 자신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평가·활용한다
	학업적 성취 및 수행능력의 향상	- 개인의 진로계획에 따른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학업적인 성취와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진로계획 및 관리	진로 의사결정	- 진로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한다.
	진로계획 및 실천	- 체계적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진로계획의 실천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효과적인 구직, 직업 유지, 전환	- 취업 및 창업 등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실천한다.

신선미, 오은진, 최윤정, 김승연, 이요행. 2016.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p. 100.

과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와 관련한 진로독서 활동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특히 독서의 의미를 “책뿐만이 아닌 각종 매체와 문화, 사회 및 자연의 환경과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개인의 전략적 사고과정”(김효정 외 1999)으로 인식할 때, 대학생들이 직업기초역량, 진로결정과 취업 성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에 기초한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 3. 진로독서 실태 분석

#### 3.1 조사 대상, 방법, 도구

본 연구는 부산소재 A대학교 문과대학(인문 및 교육계열)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4년 10월 22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5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에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곤란한 15부를 제외한 45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직업기초역량은 OECD 등의 기존 문헌에 기초하여 9가지 하위요인(문해력, 수리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외국어능력, 사업가정신,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조사의 현실적 편의상(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K-CESA의 풀 버전인 경우 소요시간 9시간 이상, 약식 버전 4시간 이상 소요) 역량모델링 관련 교육분야 전문가 2인에게 Lawshe

(198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대표성, 명확성, 포괄성)를 검증하여(전체 문항 CVR=1.0), 요인당 2~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독서 실태 조사는 진로독서 여부, 미독서 이유, 진로독서 매체의 유형, 진로독서자료의 유형, 진로독서량과 진로독서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 3.2 조사 결과 분석

##### 3.2.1 직업기초역량

문과대학생의 학과별 직업기초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학과별 직업기초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기초로 학과별 직업기초역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과별 평균을 비교하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변량분석을 통해 학과별 직업기초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하위영역에서는 문해력에서  $F(1, 12) = 2.66$ 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외국어능력에서  $F(1, 12) = 6.32$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수리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사업가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과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2.2 진로독서 실태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의 진로독서는 직업기초 역량과 관련한 독서활동,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직업인로서의 자신의 이해, 직업세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57)

구분	빈도	백분위(%)	누적백분위(%)
성별	남	148	32.4
	여	309	67.6
학년	1학년	126	27.6
	2학년	98	21.4
	3학년	134	29.3
	4학년	99	21.7
학과	국어국문학과	22	4.8
	영어영문학과	43	9.4
	독일지역학과	48	10.5
	프랑스지역학과	19	4.2
	일어일문학과	40	8.8
	한문학과	21	4.6
	사학과	47	10.3
	철학과	35	7.7
	문헌정보학과	33	7.2
	교육학과	28	6.1
	유아교육과	49	10.7
	윤리교육과	36	7.9
	중국학과	36	7.9
학점	2.0 미만	13	2.8
	2.0 ~ 2.5 미만	26	5.7
	2.5 ~ 3.0 미만	73	16.0
	3.0 ~ 3.5 미만	139	30.4
	3.5 ~ 4.0 미만	125	27.4
	4.0 이상	81	17.7

〈표 5〉 학과별 직업기초역량의 평균, 표준편차

(N=457)

학과	인원	문해력	수리력	정보 기술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외국어 능력	사업가 정신	자기 주도 학습 능력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국어국문학과	22	3.45(.510)	2.55(.800)	2.95(1.046)	3.68(.839)	3.59(.796)	3.55(.596)	2.73(.703)	3.14(.889)	3.14(.640)
영어영문학과	43	3.16(.785)	2.77(.922)	2.93(.961)	3.40(.760)	3.37(.757)	3.07(.828)	3.21(.804)	2.79(.861)	3.21(.965)
독일지역학과	48	3.23(.660)	2.90(.778)	3.13(.672)	3.63(.789)	3.65(.699)	3.42(.821)	3.04(.771)	3.33(.930)	3.21(.824)
프랑스지역학과	19	3.16(.602)	2.58(.961)	3.00(.943)	3.79(.631)	3.68(.671)	3.47(.612)	3.11(.875)	2.74(.933)	3.42(1.121)
일어일문학과	40	3.53(.877)	2.90(1.128)	3.23(1.050)	3.78(.974)	3.68(.997)	3.63(.868)	3.70(1.043)	3.28(1.086)	3.23(1.050)
한문학과	21	3.19(.680)	2.71(.845)	2.67(.730)	3.43(.811)	3.38(.740)	3.33(.796)	2.62(.740)	2.57(.870)	2.90(.831)
사학과	47	3.49(.777)	2.51(.856)	3.06(.870)	3.57(.878)	3.57(.744)	3.38(.795)	2.64(.870)	2.49(.975)	3.09(.996)
철학과	35	3.26(.741)	2.60(.914)	2.80(.833)	3.66(.906)	3.60(.812)	3.37(.910)	2.60(.881)	2.97(.923)	3.11(1.051)
문헌정보학과	33	3.70(.770)	2.67(.890)	3.39(.609)	3.30(.810)	3.55(.794)	3.33(.736)	2.45(.869)	2.73(.719)	3.03(.918)
교육학과	28	3.54(.693)	2.64(.911)	3.07(.858)	3.68(.723)	3.86(.591)	3.54(.637)	2.61(1.066)	2.71(.854)	3.18(.670)
유아교육과	49	3.63(.668)	2.82(.928)	3.22(.848)	3.71(.707)	3.80(.735)	3.53(.710)	2.67(1.088)	2.71(.913)	3.39(.862)
윤리교육과	36	3.17(.561)	2.83(.878)	3.00(.756)	3.44(.652)	3.39(.599)	3.33(.632)	2.92(.770)	3.06(.754)	3.25(.841)
중국학과	36	3.50(.655)	2.64(.961)	2.92(.937)	3.64(.867)	3.81(1.064)	3.25(.649)	3.36(.762)	2.92(.967)	3.22(1.017)
합계	457	3.40(.724)	2.72(.909)	3.05(.866)	3.59(.809)	3.61(.790)	3.39(.762)	2.91(.943)	2.89(.935)	3.19(.918)



〈표 6〉 직업기초역량의 학과별 차이

(N=456)

직업기초 역량	구분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비고
문해력	집단-간	16.03	12	1.34	2.66**	문헌정보학과, 유아교육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윤리교육과, 한문학과
	집단-내	223.29	444	.50		
	합계	239.31	456			
수리력	집단-간	7.90	12	.66	.79	
	집단-내	368.69	444	.83		
	합계	376.59	456			
정보기술 활용능력	집단-간	13.78	12	1.15	1.55	
	집단-내	328.06	444	.74		
	합계	341.84	456			
대인관계 능력	집단-간	9.26	12	.77	1.18	
	집단-내	289.22	444	.65		
	합계	298.48	456			
의사소통 능력	집단-간	10.62	12	.89	1.435	
	집단-내	273.83	444	.62		
	합계	284.45	456			
문제해결 능력	집단-간	9.88	12	.82	1.43	
	집단-내	255.22	444	.58		
	합계	265.10	456			
외국어능력	집단-간	59.11	12	4.93	6.32***	일어일문학과, 중국학과 > 철학과, 한문학과, 교육학과, 사학과
	집단-내	346.48	444	.78		
	합계	405.672	456			
사업가정신	집단-간	31.74	12	2.65	3.20	
	집단-내	366.79	444	.83		
	합계	398.53	456			
자기주도적 학습	집단-간	6.51	12	.54	.64	
	집단-내	377.92	444	.85		
	합계	384.44	456			
직업기초 역량 전체	집단-간	443.46	12	36.96	1.63	
	집단-내	10094.58	444	22.74		
	합계	10538.04	456			

\*\*p <.01, \*\*\*p <.001

계의 이해와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와 관련한 독서활동으로 정의한다. 다만, 전공교과로 사용되는 교재나 문헌은 진로독서에서 제외한다. 문과대학생의 진로독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 자료의 독서여부, 독서유형, 독서량, 독서 시간을 조사하였다. 진로자료 독서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자료 독서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문과대학 전체 학과에서 '독서하지 않고 있다' 298명(65.2%), '독서하고 있다' 159명(34.8%)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학생들이 진로독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과대 학생들이 진로 관련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진로자료 독서 여부

(N=457)

학과	독서하지 않고 있다	독서하고 있다	전체
	n(%)	n(%)	n(%)
국어국문학과	18(81.8)	4(18.2)	22(100.0)
영어영문학과	25(58.1)	18(41.9)	43(100.0)
독일지역학과	32(66.7)	16(33.3)	48(100.0)
프랑스지역학과	11(57.9)	8(42.1)	19(100.0)
일어일문학과	21(52.5)	19(47.5)	40(100.0)
한문학과	15(71.4)	6(28.6)	21(100.0)
사학과	28(59.6)	19(40.4)	47(100.0)
철학과	24(68.6)	11(31.4)	35(100.0)
문헌정보학과	21(63.6)	12(36.4)	33(100.0)
교육학과	18(64.3)	10(35.7)	28(100.0)
유아교육과	35(71.4)	14(28.6)	49(100.0)
윤리교육과	24(66.7)	12(33.3)	36(100.0)
중국학과	26(72.2)	10(26.3)	36(100.0)
전체	298(65.2)	159(34.8)	457(100.0)

〈표 8〉 진로 관련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N=298)

학과	독서하지 않음(전체)	궁금하지 않음	읽을 만한 자료 없음	읽을 시간 부족	기타
	n(%)	n(%)	n(%)	n(%)	n(%)
국어국문학과	18(100.0)	5(27.8)	4(22.2)	10(55.6)	1(5.6)
영어영문학과	25(100.0)	9(36.0)	2(8.0)	14(56.0)	1(4.0)
독일지역학과	32(100.0)	7(21.9)	12(37.5)	12(37.5)	4(12.5)
프랑스지역학과	11(100.0)	2(18.2)	4(36.4)	4(36.4)	1(9.1)
일어일문학과	21(100.0)	3(14.3)	9(42.9)	9(42.9)	0(0.0)
한문학과	15(100.0)	5(33.3)	3(20.0)	7(46.7)	1(6.7)
사학과	28(100.0)	6(21.4)	9(32.1)	10(35.7)	4(14.3)
철학과	24(100.0)	6(25.0)	7(29.1)	10(41.7)	4(16.7)
문헌정보학과	21(100.0)	2(9.5)	5(32.8)	9(42.9)	4(19.0)
교육학과	18(100.0)	2(11.1)	4(22.2)	8(44.4)	5(27.8)
유아교육과	35(100.0)	4(11.4)	8(22.9)	21(60.0)	2(1.2)
윤리교육과	24(100.0)	8(33.3)	3(12.5)	13(54.2)	5(20.8)
중국학과	26(100.0)	8(30.8)	7(26.9)	11(42.3)	1(3.8)
전체	298(100.0)	67(22.5)	77(25.8)	138(46.3)	33(11.1)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문과대학생들 중 진로 관련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298명의 학생 중, '진로에 대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138명, 4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진로와 관련

해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77명, 25.8%),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어서'(67명, 22.5%), '기타'(예, 효과 없음)(33명, 1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별에서도 대부분 같은 순으로 진로 관련 독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

하였다.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자료 독서의 매체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 중, 종이매체

이용은 122명(76.7%)이며, 전자자료 이용은 79명(49.7%)으로 나타났다. 각 학과의 경우에도 유아교육학과 등 3개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종이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 관련 독서자료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진로 관련 독서 매체자료

(복수응답, N=159)

학과	독서하고 있다 전체 n(%)	종이매체	전자자료
		n(%)	n(%)
국어국문학과	4(100.0)	4(100.0)	1(25.0)
영어영문학과	18(100.0)	16(88.9)	4(22.2)
독일지역학과	16(100.0)	12(75.0)	8(5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5(62.5)	6(75.0)
일어일문학과	19(100.0)	13(68.4)	10(52.6)
한문학과	6(100.0)	6(100.0)	2(33.3)
사학과	19(100.0)	17(89.5)	9(47.4)
철학과	11(100.0)	8(72.7)	5(45.5)
문헌정보학과	12(100.0)	9(75.0)	8(66.7)
교육학과	10(100.0)	8(80.0)	6(60.0)
유아교육학과	14(100.0)	8(57.1)	10(71.4)
윤리교육학과	12(100.0)	11(91.7)	4(33.3)
중국학과	10(100.0)	5(50.0)	6(60.0)
전체	159(100.0)	122(76.7)	79(49.7)

<표 10> 진로 관련 독서자료 유형

(복수응답, N=159)

학과	독서하고 있다 전체 n(%)	단행본	학술논문	오디오	동영상	기타
		n(%)	n(%)	n(%)	n(%)	n(%)
국어국문학과	4(100.0)	2(50.0)	1(25.0)	0(0.0)	1(25.0)	0(0.0)
영어영문학과	18(100.0)	16(88.9)	1(5.6)	2(11.1)	4(22.2)	0(0.0)
독일지역학과	16(100.0)	12(75.0)	4(25.0)	1(6.3)	5(31.3)	0(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8(100.0)	1(12.5)	2(25.0)	6(75.0)	0(0.0)
일어일문학과	19(100.0)	16(84.2)	8(42.1)	4(21.1)	10(52.6)	0(0.0)
한문학과	6(100.0)	5(83.3)	2(33.3)	1(16.7)	2(33.3)	0(0.0)
사학과	19(100.0)	16(84.2)	6(31.6)	4(21.1)	6(31.6)	2(10.5)
철학과	11(100.0)	10(91.0)	2(18.2)	0(0.0)	0(0.0)	0(0.0)
문헌정보학과	12(100.0)	11(91.7)	4(33.3)	1(8.3)	5(41.7)	1(8.3)
교육학과	10(100.0)	9(90.0)	1(10.0)	1(10.0)	3(30.0)	0(0.0)
유아교육과	14(100.0)	8(57.1)	3(21.4)	1(7.1)	4(28.6)	4(28.6)
윤리교육과	12(100.0)	10(83.3)	1(8.3)	0(0.0)	4(33.3)	0(0.0)
중국학과	10(100.0)	6(60.0)	4(40.0)	1(10.0)	3(30.0)	0(0.0)
전체	159(100.0)	129(77.4)	38(23.9)	18(11.3)	53(33.3)	7(4.4)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 중 진로 관련 독서자료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행본자료’가 129명(77.4%)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영상자료’ 53명(33.3%), ‘학술논문자료’ 38명(23.9%), ‘오디오자료’ 18명(11.3%) 마지막으로 ‘기타’ 7명(4.4%), 순으로 선택하였다.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독서유형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 중 진로와 관련한 독서 유형은 진로계획 설정 관련 책·자료 115명(72.3%), 리더십·인간관계나 교양 관련 책·자료 75명(47.2%), 직업역량(전문성) 관련 책·자료 65명(40.9%),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이해 관련 책·자료 54명(34.0%), 창업(1인

창업 등) 관련 책·자료 33명(20.8%)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된 독서량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 중 진로 관련 단행본, 학술논문과 여타콘텐츠에 대한 학기당 독서 권수를 살펴보면 단행본은 5권미만 103명(64.8%), 1권미만 25명(15.7%), 10권미만 16명(10.1%), 20권미만 12명(7.5%), 20권 이상 3명(1.9%)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술논문은 1권미만 124명(78.0%), 5권미만 31명(19.5%), 20권 이상 2명(1.3%), 10권미만(0.6%), 20권미만(0.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타 콘텐츠는 1권미만 105명(66.0%), 5권미만 31명(19.5%), 20권미만 10명(6.3%), 10권미만 7

〈표 11〉 진로 관련 독서유형

(복수응답, N=159)

학과	독서하고 있다 (전체)	진로계획	기업이해	창업관련	전문성	리더십 인간관계
	n(%)	n(%)	n(%)	n(%)	n(%)	n(%)
국어국문학과	4(100.0)	3(75.0)	0(0.0)	1(25.0)	1(25.0)	2(50.0)
영어영문학과	18(100.0)	12(66.7)	9(50.0)	1(5.6)	4(22.2)	4(22.2)
독일지역학과	16(100.0)	10(62.5)	7(43.8)	9(56.3)	3(18.8)	7(43.8)
프랑스지역학과	8(100.0)	7(87.5)	4(50.0)	1(12.5)	5(62.5)	4(50.0)
일어일문학과	19(100.0)	17(89.5)	10(52.6)	7(36.8)	9(47.4)	13(68.4)
한문학과	6(100.0)	5(83.3)	2(33.3)	0(0.0)	1(16.7)	1(16.7)
사학과	19(100.0)	14(73.7)	5(26.3)	1(5.3)	8(42.1)	10(52.6)
철학과	11(100.0)	7(63.6)	2(18.2)	1(9.1)	5(45.5)	4(36.4)
문헌정보학과	12(100.0)	8(66.7)	3(25.0)	5(41.7)	6(50.0)	3(25.0)
교육학과	10(100.0)	7(70.0)	3(30.0)	2(20.0)	7(70.0)	7(70.0)
유아교육과	14(100.0)	11(78.6)	1(7.1)	0(0.0)	6(42.9)	8(57.1)
융리교육과	12(100.0)	8(66.7)	4(33.3)	3(25.0)	6(50.0)	7(58.3)
중국학과	10(100.0)	6(60.0)	4(40.0)	2(20.0)	4(40.0)	5(50.0)
전체	159(100.0)	115(72.3)	54(34.0)	33(20.8)	65(40.9)	75(47.2)

〈표 12〉 진로 관련 독서량

(N=159)

유형	학과	전체	1권미만	5권미만	10권미만	20권미만	20권이상
		n(%)	n(%)	n(%)	n(%)	n(%)	n(%)
단행본	국어국문학과	4(100.0)	1(25.0)	3(75.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8(100.0)	1(5.6)	14(77.8)	2(11.1)	1(5.6)	0(0.0)
	독일지역학과	16(100.0)	4(25.0)	11(68.8)	1(6.3)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1(12.5)	7(87.5)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9(100.0)	1(5.3)	7(36.8)	4(21.1)	6(31.6)	1(5.3)
	한문학과	6(100.0)	0(0.0)	5(83.3)	0(0.0)	1(16.7)	0(0.0)
	사학과	19(100.0)	2(10.5)	14(73.7)	1(5.3)	0(0.0)	2(10.5)
	철학과	11(100.0)	2(18.2)	6(54.5)	2(18.2)	1(9.1)	0(0.0)
	문헌정보학과	12(100.0)	1(8.3)	9(75.0)	2(16.7)	0(0.0)	0(0.0)
	교육학과	10(100.0)	1(10.0)	7(70.0)	2(20.0)	0(0.0)	0(0.0)
	유아교육과	14(100.0)	5(35.7)	8(57.1)	0(0.0)	1(7.1)	0(0.0)
	윤리교육과	12(100.0)	2(16.7)	7(58.3)	2(16.7)	1(8.3)	0(0.0)
	중국학과	10(100.0)	4(40.0)	5(50.0)	0(0.0)	1(10.0)	0(0.0)
	전체	159(100.0)	25(15.7)	103(64.8)	16(10.1)	12(7.5)	3(1.9)
학술논문	국어국문학과	4(100.0)	3(75.0)	1(25.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8(100.0)	17(94.4)	1(5.6)	0(0.0)	0(0.0)	0(0.0)
	독일지역학과	16(100.0)	11(68.8)	5(31.3)	0(0.0)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8(100.0)	0(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9(100.0)	12(63.2)	5(26.3)	1(5.3)	1(5.3)	0(0.0)
	한문학과	6(100.0)	5(83.3)	1(16.7)	0(0.0)	0(0.0)	0(0.0)
	사학과	19(100.0)	16(84.2)	1(5.3)	0(0.0)	0(0.0)	2(10.5)
	철학과	11(100.0)	7(63.6)	4(36.4)	0(0.0)	0(0.0)	0(0.0)
	문헌정보학과	12(100.0)	8(66.7)	4(33.3)	0(0.0)	0(0.0)	0(0.0)
	교육학과	10(100.0)	9(90.0)	1(10.0)	0(0.0)	0(0.0)	0(0.0)
	유아교육과	14(100.0)	11(78.6)	3(21.4)	0(0.0)	0(0.0)	0(0.0)
	윤리교육과	12(100.0)	11(91.7)	1(8.3)	0(0.0)	0(0.0)	0(0.0)
	중국학과	10(100.0)	6(60.0)	4(40.0)	0(0.0)	0(0.0)	0(0.0)
	전체	159(100.0)	124(78.0)	31(19.5)	1(6)	1(6)	2(1.3)
여타콘텐츠	국어국문학과	4(100.0)	2(50.0)	1(25.0)	0(0.0)	1(25.0)	0(0.0)
	영어영문학과	18(100.0)	13(72.2)	4(22.2)	1(5.6)	0(0.0)	0(0.0)
	독일지역학과	16(100.0)	10(62.5)	5(31.3)	0(0.0)	1(6.3)	0(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5(62.5)	1(12.5)	0(0.0)	2(25.0)	0(0.0)
	일어일문학과	19(100.0)	11(57.9)	3(15.8)	1(5.3)	1(5.3)	3(15.8)
	한문학과	6(100.0)	5(83.3)	1(16.7)	0(0.0)	0(0.0)	0(0.0)
	사학과	19(100.0)	11(57.9)	3(15.8)	1(5.3)	2(10.5)	2(10.5)
	철학과	11(100.0)	10(90.9)	0(0.0)	1(9.1)	0(0.0)	0(0.0)
	문헌정보학과	12(100.0)	7(58.3)	1(8.3)	1(8.3)	2(16.7)	1(8.3)
	교육학과	10(100.0)	4(40.0)	4(40.0)	2(20.0)	0(0.0)	0(0.0)
	유아교육과	14(100.0)	9(64.3)	5(35.7)	0(0.0)	0(0.0)	0(0.0)
	윤리교육과	12(100.0)	10(83.3)	2(16.7)	0(0.0)	0(0.0)	0(0.0)
	중국학과	10(100.0)	8(80.0)	1(10.0)	0(0.0)	1(10.0)	0(0.0)
	전체	159(100.0)	105(66.0)	31(19.5)	7(4.4)	10(6.3)	6(3.8)

명(4.4%), 20권 이상 6명(3.8%)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학기당 1권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 중 진로 관련 독서량 전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 중 진로 독서량 즉 단행본, 학술논문과 여타콘텐츠를 학기당 독서 총 권수를 살펴보면 15권미만 137명(86.2%), 1권미만 11명(6.9%), 30권미만 4명(2.5%), 60권이상 4명(2.5), 60권미만 3명(1.9%)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학기당 15권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진로 관련 독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159명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독서시간을 살

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독서 시간은 5시간미만 109명(68.6%), 10시간미만 20명(12.6%), 20시간미만 14명(8.8%), 1시간미만 9명(5.7%), 20시간이상 7명(4.4%)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과별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주당 진로 독서시간은 5시간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양적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문과대학 13개 학과의 교수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과에서 진로독서를 개별 교수의 교과단위로 일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로독서 체계를 갖추어 시행하는 경우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진로독서와 관련한 문과대학의 프로그램을 파악해 본 결과, 문과대학은 진로기초독서(1~2학년 대상)는 주로 취업관련부서 등

<표 13> 전체 진로 관련 독서량

(N=159)

유형	학과	전체	1권미만	15권미만	30권미만	60권미만	60권이상
		n(%)	n(%)	n(%)	n(%)	n(%)	n(%)
진로 독서 량	국어국문학과	4(100.0)	0(0.0)	4(100.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8(100.0)	1(5.6)	17(94.4)	0(0.0)	0(0.0)	0(0.0)
	독일지역학과	16(100.0)	3(18.8)	13(81.3)	0(0.0)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0(0.0)	8(100.0)	0(0.0)	0(0.0)	0(0.0)
	일어일문학과	19(100.0)	1(5.3)	14(73.7)	1(5.3)	2(10.5)	1(5.3)
	한문학과	6(100.0)	0(0.0)	6(100.0)	0(0.0)	0(0.0)	0(0.0)
	사학과	19(100.0)	1(5.3)	15(78.9)	0(0.0)	1(5.3)	2(10.5)
	철학과	11(100.0)	2(18.2)	8(72.7)	1(9.1)	0(0.0)	0(0.0)
	문헌정보학과	12(100.0)	1(8.3)	9(75.0)	1(8.3)	0(0.0)	1(8.3)
	교육학과	10(100.0)	0(0.0)	10(100.0)	0(0.0)	0(0.0)	0(0.0)
	유아교육과	14(100.0)	0(0.0)	14(100.0)	0(0.0)	0(0.0)	0(0.0)
	윤리교육과	12(100.0)	1(8.3)	11(91.7)	0(0.0)	0(0.0)	0(0.0)
	중국학과	10(100.0)	1(10.0)	8(80.0)	1(10.0)	0(0.0)	0(0.0)
	전체	159(100.0)	11(6.9)	137(86.2)	4(2.5)	3(1.9)	4(2.5)

〈표 14〉 진로독서 시간

(N=159)

유형	학과	전체	1시간 미만	5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n(%)	n(%)	n(%)	n(%)	n(%)	n(%)
진로독서시간	국어국문학과	4(100.0)	1(25.0)	3(75.0)	0(0.0)	0(0.0)	0(0.0)
	영어영문학과	18(100.0)	0(0.0)	16(88.9)	1(5.6)	0(0.0)	1(5.6)
	독일지역학과	16(100.0)	1(6.3)	14(87.5)	1(6.3)	0(0.0)	0(0.0)
	프랑스지역학과	8(100.0)	1(12.5)	6(75.0)	1(12.5)	0(0.0)	0(0.0)
	일어일문학과	19(100.0)	0(0.0)	2(10.5)	5(26.3)	9(47.4)	3(15.8)
	한문학과	6(100.0)	0(0.0)	6(100.0)	0(0.0)	0(0.0)	0(0.0)
	사학과	19(100.0)	1(5.3)	11(57.9)	2(10.5)	3(15.8)	2(10.5)
	철학과	11(100.0)	2(18.2)	5(45.5)	3(27.3)	1(9.1)	0(0.0)
	문헌정보학과	12(100.0)	1(8.3)	10(83.3)	1(8.3)	0(0.0)	0(0.0)
	교육학과	10(100.0)	0(0.0)	8(80.0)	2(20.0)	0(0.0)	0(0.0)
	유아교육과	14(100.0)	0(0.0)	13(92.9)	1(7.1)	0(0.0)	0(0.0)
	윤리교육과	12(100.0)	1(8.3)	8(66.7)	2(16.7)	1(8.3)	0(0.0)
	중국학과	10(100.0)	1(10.0)	7(70.0)	1(10.0)	0(0.0)	1(10.0)
	전체	159(100.0)	9(5.7)	109(68.6)	20(12.6)	14(8.8)	7(4.4)

이 주관하는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학과별 밀착 학습형태로 운영하는 대학생활 설계 과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진로심화독서는 학과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채 주로 학생 개개인에게 맡겨진 상태이다. 다만, 교육학과는 『교육학과 나오면 뭐 하노?』라는 진로가이드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문헌정보학과는 외부의 진로멘토링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진로세미나 형태로 진로심화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A대학 문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독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인문 및 교육계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역량과 진로독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초역량을 조사한 결과, 학과별 직업기초역량의 차이는 문해력과 외국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직업기초역량의 수준이 2.72에서 3.61 수준으로 나타나 4점을 초과하는 우수한 역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진로독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과대학 전체 학과에서 65.2%가 독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34.8%가 독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로에 대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46.3%,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25.8%, 궁금한 것이 없

어서 22.5% 순이었다. 독서 매개체는 종이매체 이용 76.7%, 전자자료 이용은 49.7%였다. 진로독서 시간은 5시간미만 68.9%, 10시간미만 12.6% 등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진로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독서시간과 독서정보나 관심 부족을 주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진로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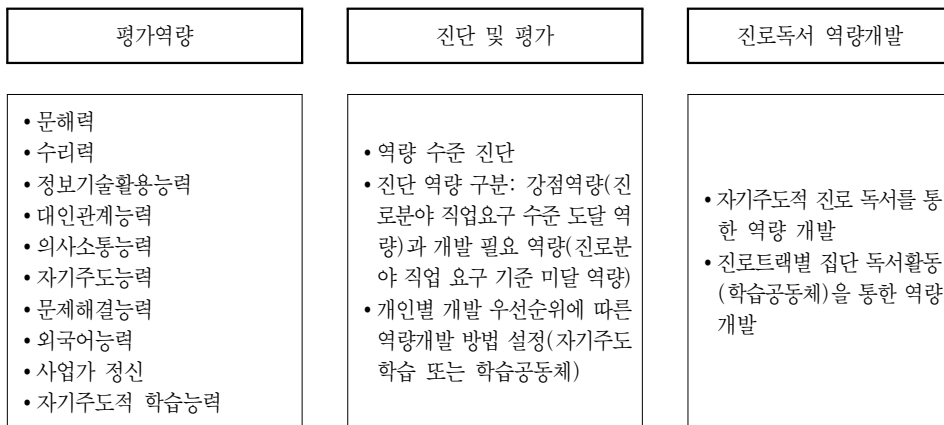
셋째, 진로독서를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독서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진로계획 설정 관련 72.3%, 리더십·인간관계나 교양 관련 47.2%, 직업역량(전문성) 관련 40.9%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독서는 주로 진로계획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직업기초역량개발에는 관심을 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과대학 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직업기초역량을 평가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을 학과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하지만, 실태분석 결과, 학과 차원에서 직업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과대학생들이 이공계 등의 여타대학 학생들과 비교우위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진출하기 위해서는 학과 차원에서 직업기초역량을 평가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과의 진로분야별 특성이나 학생의 희망 진로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직업기초역량의 초점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성이나 분야에 맞추어 요구되는 역량 수준을 진단한 후, 진로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정 역량 수준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역량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주도적 진로 독서를 통한 개인별 역량개발의 지원과 진로트랙별 공통 역량의 개발을 위한 집단 독서활동(학습공동체) 등의 구축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학과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어떤 학생은 1학년부터(아니 그 이전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



〈그림 1〉 직업기초역량 진단과 개발을 위한 진로독서모형



정하고, 직업 진출을 위한 준비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4학년이 되어도 진로설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진로독서가 미흡하고, 그럼에도 학과 차원에서 진로독서에 대한 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성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과 차원에서 진로독서 체계화에 대한 논의와 실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과단위별 전공진로독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할을 학과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독서 프로세스를 하위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로 학년별 전공과 진로에 관한 필요 도서를 선정하고, 2단계로 개인 필요역량에 따른 도서를 선정하여 진로 독서 계획을 설정하며, 3단계로 진로독서를 하기 위한 필요 도서를 제공하고, 4단계로 비평과 도서준비성 평가(사전-사후 비교)를 하도록 하고, 5단계로 독서를 끝낸 후 그에 따른 독서 인증제 시행이나 인증제에 따른 학점 부여,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한 독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제언한다. 학생들의 상당수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진로독서를 진로기초독서와 진로심화독서로 구분하여 ① 1단계에서 진로분석 및 진로준비성(직업기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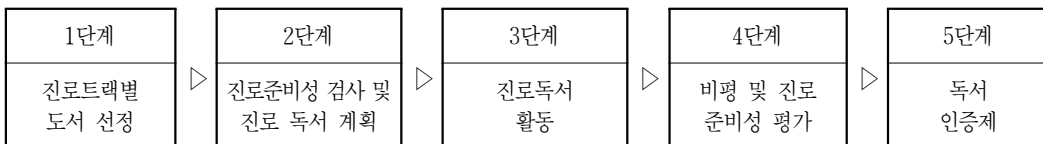
량,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진로 계획 및 관리 영역)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도록 하고, ② 2단계에서 진로별 도서를 동일 진로분야 학생들로 그룹을 만들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 등을 통해 진로별로 도서를 선정하게 한 다음, ③ 독서를 실행하고 인증하는 형태로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학과별로 실시하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비추어 향후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독서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서 기존의 문헌에 기초하여 대학생에 맞게 제시하였으나, 향후 정부의 대학 진로정책과 교육영역과 연계하여 진로독서에 대한 정의, 목표, 진로교육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진로독서 실태의 세부내용 영역 설정과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독서의 정의에서 구성요인으로 다룬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에 대한 요인별 적합한 진로역량의 도출과 검증, 그리고 이에 기반한 진로준비성 검사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주도적 진로독서와 진로학습공동체 모형의 구안과 검증,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학과 진로 독서 모형

##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2011.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진로독서프로그램(평생교육과 장학자료 2011-01)』. 수원: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 2014. 『대졸자 취업률 통계자료』. 서울: 교육부.
- 김미란. 2012.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정착 과정과 전공·성별 차이. 『KRIVET Issue Brief』, 6: 1-4.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2.
- 김희복 외. 2014. 『교육학과 나오면 뭐 하노?: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진로가이드북』. 부산: 세종출판사.
- 김효정 외. 1999.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대학저널』. 2017. 대학생들, 진로결정 어려움 겪는 이유 '정보부족': 중앙대,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3월 15일. [online]. [cited 2018.7.5].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03>>.
- 류기락. 2014.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KRIVET Issue Brief』, 51: 1-4. [online]. [cited 2018.7.2].  
<<http://krivet.re.kr/ku/da/kuBDCVw.jsp?pgn=7&gk=ALL&gv=&gn=G7-E520140009>>.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혜경.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역량개발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박희영. 2017. 『진로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 『시사저널』. 2011. 대학생들 독서시간의 3배를 인터넷에 쓴다. 11월 24일. [online]. [cited 2018.7.5].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86>>.
- 신선미, 오은진, 최윤정, 김승연, 이요행. 2016.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세종: 여성가족부.
- 『아시아투데이』. 2018. 청년 구직활동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정보 부족. 3월 4일. [online]. [cited 2018.6.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04010000671>>.
- 유길상. 2014. 『대학생을 위한 취업교육: 진로계획 수립과 노동시장의 이해』.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이명희.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지도 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79-102.
- 장서영 외. 2014. 『대학교수용 학생 진로지도 가이드』.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전재식. 2012. 대졸 하향취업의 고착화 현상과 노동시장 효과. 『KRIVET Issue Brief』, 7: 1-4.

- 정재호, 이은혜. 2013. 대학 전공 선택의 배경과 노동시장 성과: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KRIVET Issue Brief』, 31: 1-4.
- 주용국. 2017. 창조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모형구안과 적용: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3(1): 153-186.
- 진미석. 2017.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과 전략. 『제2회 전국대학 진로취업교육포럼 자료집』, 3-23.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외. 2017. 『대학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시범대학 사업 총괄보고』.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이강주, 이상아, 김하령. 2017. 대학생 진로교육경험과 진로개발 핵심역량. 『핵심역량교육연구』, 2: 1-21.
- 채창균. 2014.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 『KRIVET Issue Brief』, 56: 1-4.
- 최동선, 윤형한. 2007. 『생애단계별 진로개발표준-전문대학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대학신문』. 2012. [시론] 어떤 역량 키울 것인가?. 5월 14일. [online]. [cited 2018.7.2].  
 <<http://news.unn.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10000>>.
- 황미숙. 2017. 『진로독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Fouad, N. A. et al. 2008. "Asian america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2(1): 43-59.
- Lawshe, C. H. 1985. "Inferences from personnel tests and their valid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1): 237-238.
- LEXILE Home page. [online]. [cited 2010.6.15]. <<http://www.lexile.com/>>.
- OECD Home page. <<http://www.oecd.org/pisa>>.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e, Chang-kyun. 2014. "Comparison of Initial Labor Market Outcomes between 4-Year College Graduates and Community College Graduates." *KRIVET Issue Brief*, 56: 1-4.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North Office 2011. *Career-reading Program Using the School Library(Lifelong Education Scholarship Data 2011-01)*. Suw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Hwang, Mi Sook. 2017. *The Effect of the Career Read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Vocational Values Formation*. M.A. Thesis. Catholic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Jang, Seo-yeong et al. 2014. *Student Career Guidance Guide for College Professors*. Eumseong: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Jeon, Jae-sik. 2012. "College Graduates' Fixation of Downwar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Effect." *KRIVET Issue Brief*, 7: 1-4.
- Jin, Mi-seok et al. 2017. *Report on the University's Career Guidance and Career Start-up University Pilot Project*.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in, Mi-seok, Kang-ju Lee, Sang-A Lee, and Ha-ryung Kim. 2017.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Experiences and Career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2: 1-21.
- Jin, Mi-seok. 2017. "Direction and Strategy of College Career Education." *The 2nd National University Career Education Forum*, 3-23.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oo, Yong-kook. 2017. "Development of Model of a Creative HRD Policy and its Application to the Creative HRD Polici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1): 153-186.
- Jung, Jae-ho and Eun-hye Lee. 2013. "The Background of College Major Selec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Focusing on 4-Year College Students." *KRIVET Issue Brief*, 31: 1-4.
- Kim, Hee-bok, et al. 2014. *What Do You Do When You Study Education?: Career Guidebook for Kyungsoo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Busan: Sejong Publishing Company.
- Kim, Hyo-jung, et al. 1999.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ading Education*.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im, Mi-ran. 2012. "The Settlement in Labor Market and the Difference of Major×Gender of College Graduates." *KRIVET Issue Brief*, 6: 1-4.
- Lee, Myeong-Hee. 2012. "Development of the Reading Guidance Course for Strengthening Core Competenci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79-10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2013 National Reading Surve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2014. *Statistics Data on Employment Rate for College Graduat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Park, Hee Young. 2017. *The Effects of the Career Reading Debate Program on Elementary*

- Students' Self Concept and Career Development*. M.A. Thesis. Kun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 Park, Hye Kyeong. 2013. *Gender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competency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M.A. Thesis.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Ryu, Ki-rak. 2014. "Level of Education and Skill Mismatch and Labor Market Outcomes." *KRIVET Issue Brief*, 51: 1-4. [online]. [cited 2018.7.2].  
〈<http://krivet.re.kr/ku/da/kuBDCVw.jsp?pgn=7&gk=ALL&gv=&gn=G7-E520140009>〉.
- Yu, Gil Sang. 2014. *Employment training for college students: career planning and 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College Students Spend Three Times the Reading Time on the Internet.' 2011. Sisa Journal, November 24. [online]. [cited 2018.7.5].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86>〉.
- 'College Students, the Reason Why They are Having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ir Career 'Lack of Information': Chung-Ang University Announces of Survey results for Students.' 2017. Dhnews, March 15. [online]. [cited 2018.7.5].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03>〉.
- 'The Most Difficult Point in Job-seeking Activities for Youth is Lack of Employment Information.' 2018. Asia Today, March 4. [online]. [Accessed 2018.6.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04010000671>〉.
- 'What Skills Will You Develop?'. 2012. Daily UNN, May 14. [online]. [cited 2018.7.2].  
〈<http://news.unn.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10000>〉.

